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오동진
영화평론가



한때 캐나다의 3대 감독은 그 유명한 데이빗 크로넨버그와 아를 에고이양, 그리고 프랑수아 지라르였다. 프랑수와 지라르 같은 이름은 아무래도 불어권처럼 들린다. 당연히 퀘벡과 몬트리올을 배경으로 하던 인물이었다.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크래쉬'는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기계와 합체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이한 '트랜스' 욕망을 그려냈다. 크로넨버그의 영화들은 파리로 변하는 남자 이야기('더 플라이')나 TV가 되어 가는 변종 인간('비디오 드롭') 등의 예기로 충격을 줬다. 크로넨버그의 이상한 영화적 욕망은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중이다. 최근의 화제작 '서브스틴스'가 그렇고 프랑수아 영화 '티탄' 같은 경우도 인간이 인간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2025년인 지금 크로넨버그 등을 기억하는 영화 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의 캐나다 3대 감독은 드니 빌뇌브와 자비에 들란, 장 마르크 발레 등이 거론되는 정도다. 드니 빌뇌브는 미국으로 넘어와 할리우드 감독이 된 지 오래다. 그는 진작부터 거대한 자본의 영화를 만들고 있고('뉘'), 장 마르크 발레 역시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다 사망했다. 왕년의 캐나다 3대 감독에서 요즘의 3대 감독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영화적 정체성은 다소 빛을 잃어 가고 있다.

토론토엔 비행기 활주로 실내 세트까지

멕시코의 3대 감독은 이름 외우기가 조금 더 어렵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를 필두로 알폰소 쿠아론 그리고 길에르모 델 토로 등이다. 이들은 '멕시코인 인베이전'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2010년대 할리우드를 거쳐 세계를 주름잡았다. 이나리투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2015년과 2016년에 연거푸 뒀다. ('버드맨' '레베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알폰소 쿠아론도 '그레이비티' (2014)와 '로마' (2018)로 감독상을 두 번 뒀다. 특히 '로마'의 경우 멕시코시티의 한 중산층 거주지역인 로마를 배경으로 멕시코의 현대정치사를 그려 낸 작품이어서 의미가 컸다.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순도가 배퍼센트 빛났던 영화이기 때문이다. 쿠아론은 최근 애플TV를 통해 7부작 드라마 '디스클레이머'까지 내놓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길에르모 델 토로는 영화상 수상 복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감독이다. '헬 보이' '판의 미로: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등 그의 독특한 공포SF 영화들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 이들 멕시코 감독들은 멕시코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첨병들이다. 멕시코가 미국 땅이 아니라 당당한 북미 대륙의 나라 중 하나이며, 사실 미국의 텍사스 주도 원래는 멕시코의 것이었음을 상기시킨다.

2기 집권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두 나라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25%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양국은 일촉즉발, 관세 전쟁을 넘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기세다. 트럼프는 캐나다 온 국민이 보는 TV에서 트뤼도 총리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과 멕시코도 이민자 문제로 국경에서 이런 저런 갈등이 많은 상황이다.

영화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문화적 정체성과 순



존 웨인(왼쪽)이 주연한 1960년작 '알라모'는 200명이 6000명에 맞서 싸운 스토리다. 영화는 당시의 멕시코를 독재국가로 묘사했다. <중앙포토 제공>

트럼프가 불명진 관세 전쟁 캐나다·멕시코, 영화로 응전?

수성을 지키려 무던히도 애를 써 왔다. 캐나다의 자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4~7%를 넘지 못해 왔다. 그건 영미권 나라 다수가 비슷한데 호주 역시 자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4% 미만인 형편이다. 캐나다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포스트 산업을 육성해 왔다. 캐나다의 밴쿠버에는 음향, 녹음, 믹싱, CG, 특수효과 회사들이 몰려 있다. 퀘벡 주는 프랑수아어였던 독특한 공간 배경 탓에 유럽으로 촬영을 가야 하는 영화들이 이곳으로 온다. 영화와 TV, 광고 촬영 등 로케이션 사업이 잘 되는 곳이다. 토론토는 워낙 면적이 커서 대형 세트가 많다. 비행기 활주로를 위한 실내 세트가 있을 정도다. 풋볼 경기장 두세배 크기다. 안에서 마차가 달리고 자동차 경주 씬이 벌어진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25% 전략은 궁극적으로

존 웨인 주연 미 영웅담 '알라모'
대 멕시코 외교분쟁 왜곡 사례로

오스카 감독상 받은 쿠아론 '로마'
멕시코인의 정체성·순도 100% 빛나

트럼프 '그레이트 아메리칸...' 깃발
당분간 국경수비대 영웅담 판칠 듯

미-캐나다 간의 우호적인 영화 콜라보 작업에 제동을 걸 것이다. 드니 빌뇌브는 트럼프를 향해 어떤 영화로 응대할 것인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인 텍사스 주는 멕시코와 인연이 깊다. 유럽에서 넘어 온 앵글로 색슨 백인들은 한 줌의 숫자로 1830년대 멕시코령에 텍사스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알라모(지금의 샌 안토니오) 전투이다. 183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때 텍사스 백인 병력은 전멸했지만, 4월 21일 샌 재신토(지금의 휴스턴 동부)에서의 대전에서 멕시코 정규군이 텍사스 게릴라군에게 대패한다. 이후 텍사스는 1845년 미합중국과 합병을 통해 결국 미국이 된다. 텍사



왼쪽부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멕시코의 현대정치사를 그려 낸 작품이다. 캐나다 감독 장 마르크 발레는 2015년 '와일드'란 영화를 통해 북미대륙을 통합의 의지로 중단하려 한다. <중앙포토 제공>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중앙포토 제공>

스 주는 미국의 28번째 주이다. 존 웨인이 주연한 1960년작 '알라모'는 200명이 6000명에 맞서 싸우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영웅담이다. 영화는 당시의 멕시코를 독재국가로 묘사하고 있으며 산타 안나 대통령을 아만적인 압제자로 그려낸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 사고의 영화였다. 영화가 국제 분쟁의 역사를 왜곡한 대표작인 사례였다. 지금 트럼프는 영화 '알라모'를 내세워 자신의 대 멕시코 외교분쟁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알라모 전투에 대한 영화를 올바른 시각에서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나 알폰소 쿠아론 같은 멕시코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관세 전쟁이 영화와 문화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지금 당장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엠파이어(GAE)'란 휘호 아래 미국 땅의 국민이란 존재가 미국 우선주의란 일념에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얽히고 설킨 세계동포주의와 인류애적 발상없이 는 생존이 불가하다는 의식이 새로운 존재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캐나다 영화 '와일드'선 북미 도보 중단

리암 니슨의 2021년 영화 '마크맨'은 애리조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멕시코와 미국은 총 4개 주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주인공 짐은 퇴역군인으로 명사수 출신이다. 그는 어느 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피해 목숨을 걸고 아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여인을 구하려 한다. 여인은 죽어가며 아들 미겔을 시카고의 친척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군인 출신이고 국경 보안관을 자임했던 짐은 당장 두 집단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한다. 하나는 멕시코 마약 갱단이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이다. 미국의 이민자 정책은 트럼프의 등장 이후 매우 혹독해진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제 전자팔찌 착용 등 인신 구속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영화에서 결국 짐은 미겔을 구하지만 현실의 짐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영화 '마크맨'은 다소 사소한 액션영화처럼 보이지만 정교도의 정신을 지닌 미국인이란 무엇을 '마크'해야 하는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5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타계한 뛰어난 감독 장 마르크 발레는 2015년 '와일드'란 영화를 통해 북미대륙을 통합의 의지로 중단하려 한다. 주인공 셰릴 스트레이드(리드 위더스푼)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PCT, 곧 피피시 크레스트 트레일(Pacific Crest Trail)을 떠난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총 4286km를 4개월간 위로 올라가는 도보 여행이다. 주인공 셰릴은 이 험난한 여정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는다. 셰릴은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게 꼭 미국인만은 아니다. 트럼프의 GAE, 곧 그레이트 아메리칸 엠파이어는 미국 하나만으로 완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미 정치·국경·무역 분쟁을 영화가 가라 앉힐 수 있을까. 당분간은 난망할 일일 것이다. 오히려 국경수비대의 영웅담을 호도하는 OTT '국방' 드라마들이 판칠 것 같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